



유엔사



연합사

주한미군사



# 전략 소식지 4권 11호 2018년 11월

## 10월 활동

### 에이브럼스 신임 유엔군사령관/한미연합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 미 의회 인준 마무리

미 상원 군사위원회는 10월 11일 로버트 에이브럼스 사령관 지명자에 대한 인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지난 9월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 출석한 에이브럼스 대장은 한반도에서 한미연합 군사훈련 유예로 연합군의 준비태세가 “약화됐을

수 있다”고 답변했으며, “현장에 부임하면 군사준비태세를 최우선 과제중 하나로 삼고” 직접 평가하겠다고 말했다. 빈센트 K. 브룩스 현 사령관과 신임 에이브럼스 대장의 사령관 이취임식은 오는 11월 8일 캠프 험프리스에서 열릴 예정이다.

### 한미우호협회들, 브룩스 사령관 초청 오찬

여러 한미우호협회 대표들이 10월 18일 용산 기지에서 브룩스 사령관의 송별 오찬을 주재했다. 이들 우호협회는 모두 국제관계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설립된 자원봉사기관, 시민단체 및 비영리 기구이다.

브룩스 장군은 오찬에서 한미동맹의 힘을 역설하며,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혼자 해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한 팀으로 이것을 이루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같이 갑시다’ 정신의 모든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바로 이 ‘같이 갑시다’ 정신으로 생활했습니다.”라고 강조했다.

### 주한미군, 밴달 중장 (예) 사망 애도

전 미8군사령관 토마스 S. 밴달 중장 (예)이 10월 7일 별세했다. 밴달 중장은 2016년 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미8군사령관을 역임했으며, 용산 미군기지 평택 이전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국배치에 주요한 역할을 했다. 주한미군 직원들은 한국 방어와 주한미군이 동북아 지역 안정화 세력으로 자리매김 하는데 기여한 밴달장군의 공로를 기리기 위해 검정 리본을 패용하고 애도를 표했다.

## 방문객

10월 사령부를 찾아주신 주요 방문객입니다.

- 송영길 국회의원, 10월 2일
- 프로데 솔베르그, 주한 노르웨이 대사, 10월 12일
- 티모시 베츠,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 10월 16일
- 로니 모디카, 미 국방부 미사일격멸 특별프로그램책임관, 10월 16-18일
- 닐 와일리, 미 국방정보국 분석국장, 10월 21-25일
- 데이비드 루이스 해군 중장, 미 국방계약관리본부장, 10월 23-25일
- 스콧 하월 공군 중장, 미 합동특수작전사령부 사령관, 10월 24-27일
- 윌리엄 “맥” 쏘베리, 미 하원의원(공화당-텍사스주), 하원군사위원회 위원장, 10월 27일-11월2일

## 피드백

여러분의 의견이나 제안사항을 환영합니다



사진: 미 육군 병정 벤저민 파슨스

### 유엔군사령부, DMZ 비무장화 지원

남과 북, 유엔군사령부는 9월 19일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서명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 (군사합의서)’의 책임 있는 이행을 위해 여러 차례의 3자협의체 회의를 진행했다. 군사합의서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지속 완화하여 남북 관계를 개선하기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군사합의서의 사안에는 공동경비구역(JSA)의 비무장화와 공동유해발굴 작업의 안전을 위한 지뢰 제거 등이 포함된다. 유엔군사령부는 항구적인 평화를 위한 대화 촉진에 중추적 역할을 맡아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한국전 전사자 유해를 북한에서 한국으로 송환할 수 있었다. 유엔군사령부 부사령관 웨인 에어 중장은 유엔군사령부가 “군사합의서의 성공적인 이행”을 포함한 “현재의 외교적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